| 대한민국 청와대 | 보 도 참 고 자 료<br>2018. 5. 3. | 작 성 | 총무비서관실 |
|---|---|---|---|
| | | 연락처 | 02-770-7121 |
| | | 배 포 | 춘추관장실 |
| | | 연락처 | 02-770-7677 |

# 청와대 소장 미술품 첫 대국민 공개

## 5월 9일부터 특별전 《함께, 보다.》 사랑채에서 개최

청와대 소장 미술품이 일반에 공개된다. 일부 그림이 언론을 통해 잠시 노출된 적은 있지만, 청와대 외부전시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5월 9일(수)부터 7월 29일(일)까지 소장품 특별전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가미술재산을 본래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이번 전시가 기획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것중 일부이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조각 4점 등 총 16점이 실물로 국민과 직접 만나게 되며, 이동이 어려운 벽화 4점과 소장품 10여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

전시는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보다'**에서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출품작들을 소개한다. **2부 '사계절을 보다'**에서는 귀빈을 환영하는 자리를 아름답게 빛냈던 영빈관의 사계절 풍경화를 공개한다. **3부 '청와대를 만나다'**에서는 청와대를 대표하는 건물인 본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상 공간**에서는 본관의 대형 벽화를 영상에 담아 상영한다.

본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구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http://cwdsarangcha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공간별 전시 작품

### o (1구역)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보다 - 청와대 소장 국전 출품작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가장 큰 연중행사였다. 1949년부터 1981년까지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총 30회가 개최되었으며, 4만4천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국전은 그 시기 작가들이 최고 기량을 펼쳐 보이는 열정의 무대였다.

국전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했고, 전시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가 일부 출품작을 수집했다.

| 연번 | 이미지 |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 (cm) |
|---|---|---|---|---|---|---|
| 1 | | 강태성 | 해율(海律) | 1966 | 대리석 | 69x106x79 |
| 2 | | 김형근 | 과녁 | 1970 | 캔버스에 유채 | 161×111.3 |
| 3 | | 김수현 | 가을의 여심 | 1971 | 브론즈 | 133x32x21 |
| 4 | | 이영찬 | 풍악(風岳) | 1973 | 한지에 수묵담채 | 162.8×132.4 |
| 5 | | 장리석 | 목장의 초하 | 1969 | 캔버스에 유채 | 144.7×32×21 |
| 6 | | 손수택 | 7월의 계림 | 1973 | 캔버스에 유채 | 130.2×161 |
| 7 | | 정은영 | 추성(秋聲) | 1974 | 한지에 수묵채색 | 157.9×108.3 |

## o (2구역) 사계절을 보다 - 영빈관 사계절 풍경화

영빈관은 1978년 세워졌다. 영빈관 내부는 유럽 건축 양식에 단청, 무궁화, 태극 등 한국적 요소를 더하여 장식했다.

2층 연회장에는 벽면 크기에 맞춰 제작된 사계절 풍경화를 전시했다. 이 그림들은 사계절 산수를 그린 '사계산수도' 전통을 반영해 한국의 명소와 명산을 담은 작품들이다.

| 연번 | 이미지 |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cm) |
|---|---|---|---|---|---|---|
| 1 | | 오승우 | 봄 | 1979 | 캔버스에 유채 | 252.5×165 |
| 2 | | 박광진 | 여름 | 1979 | 캔버스에 유채 | 252.5×165 |
| 3 | | | 불국사의 가을 | 1978 | 캔버스에 유채 | 182.1×132.4 |
| 4 | | 김원 | 설악 | 1978 | 캔버스에 유채 | 182.8×133 |

## o (3구역) 청와대를 만나다 - 본관 전시 작품

푸른 기와를 얹은 본관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1991년 완공된 본관은 한옥 양식을 참고해 설계되었으며, 내부는 전통을 계승한 궁중장식화와 현대적 감각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국빈 접견, 국무회의, 주요인사 간담회 등 대통령의 주요 업무가 본관에서 이뤄지는 탓에 이곳에 전시된 미술품들은 때때로 역사적 장면의 배경이 되었다. 강렬한 푸른색이 눈길을 사로잡는 전혁림 화백의 <통영항>은 여야 대표 오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간담회, 이국종 교수와의 차담회 등의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뒤편에 단골로 등장한 그림이다.

| 연번 | 이미지 |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cm) |
|---|---|---|---|---|---|---|
| 1 | | 윤영자 | 율(律) | 1991 | 대리석 | 69.5×24×76 |
| 2 | | 서세옥 | 백두산 천지도 | 1990 | 한지에 수묵담채, 금분 | 119.8×159.2 |
| 3 | | 최만린 | O 90-4 | 1990 | 브론즈 | 36.5×24.5×21, 19×35.5×18.5 |
| 4 | | 박수학 | 책거리 | 1991 | 한지에 채색 | 182×281 |
| 5 | | 전혁림 | 통영항 (한려수도) | 2006 | 캔버스에 유채 | 255.6x6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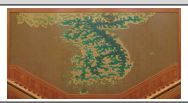
## o (4구역) 영상공간

**- 영상1: 함께 보다.**

청와대를 짓고, 내부를 꾸미고, 그림으로 채웠던 작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기록물

**- 영상2: 네 개의 벽화**

청와대 본관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벽화들을 촬영한 영상

| 연번 | 이미지 |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cm) |
|---|---|---|---|---|---|---|
| 1 |  | 김식 | 금수강산도 | 1991 | 마지에 채색 | 533×1,146 |
| 2 | | 백금남 | 훈민정음 | 1991 | 종이에 실크스크린 | 368x465 |
| 3 | | 송규태 | 일월도 | 1991 | 한지에 채색 | 637.5x465 |
| 4 | | 나정태 | 십장생문양도 | 1991 | 한지에 채색 | 300x1,000 |

| 대한민국 청와대 | 보 도 참 고 자 료<br>2018. 5. 8.<br>배포 즉시 공개 | 작 성 | 총무비서관실 |
|---|---|---|---|
| | | 연락처 | 02-770-7110 |
| | | 배 포 | 춘추관장실 |
| | | 연락처 | 02-770-7677 |

# 남북정상회담 첫 환담장 배경작품 '훈민정음'(천년의 동행, 그 시작) 청와대 소장품 전시회에 특별 전시

5월 9일(수)부터 7월 29일(일)까지 개최하는 청와대 소장품 전시회 《함께, 보다.》에 지난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의 배경 작품인 「훈민정음」 (김중만 작가, '천년의 동행, 그 시작')을 특별 전시한다.

동 작품은 김중만 작가가 세종대왕기념관이 소장한 '여초 김응현의 훈민정음'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평화의 집 1층 접견실 내 전시되었으며, 두 정상이 우리 민족 공동의 큰 자산인 훈민정음 서문을 배경으로 첫 환담장의 배경 작품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배경 작품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대통령님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특별 전시하는 것이며 사랑채 1층 전시장 내에 전시된다.

본 전시는 사전신청이나 입장권 구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http://cwdsarangcha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